

경피적 신조직 검사 후 발생한 지연성 신 주위 혈종 1예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주현준 · 이강원 · 이유민 · 정성원 · 신진호 · 안선호 · 송주홍

서 론 : 경피적 신조직검사는 신질환의 진단에 있어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경피적 신조직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혈뇨, 신 주위 혈종, 감염 등이 있으며, 이 중 출혈이 가장 흔하며, 때로는 드물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수축기, 이완기, 평균 혈압이 높은 경우, 아밀로이드증, 크레아티닌이 높은 경우 등이 제시되었다. 혈뇨의 경우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을 보이거나 일부 색전술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24시간 관찰시 혈뇨나, 동통이 없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나 저자들은 경피적 신조직검사 4일 후에 발생한 지연성 신 주위 혈종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1년 전부터 발생한 거품뇨와 3-4일 전부터 시작된 전신 부종을 주소로 내원한 54세 남자 환자로 과거력에서 당뇨 4년, 고혈압 10년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에서 혈압 130/80 mmHg, 맥박수 76/분, 호흡수 20/분, 체온 36.0°C 이었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안면 부종과 상하지에 함요부종이 있었다. 말초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2.3 g/dL, 백혈구 8,300/mm³, 혈소판 225,000/mm³ 이었고, 혈청 생화학 검사 알부민 4.1 mg/dL, 요소 56.5 mg/dL, 크레아티닌 2.4 mg/dL C3 39.3 mg/dL, C4 0.1 mg/dL, cryoglobulin 음성, ASO 311 IU/mL, Total cholesterol 141 mg/dL, Triglyceride 103 mg/dL, LDL 83 mg/dL 이었다. 요 화학 검사에서 적혈구 5-7/HPF, 단백 +++ 이었다. 24시간 요검사서 단백질 3.45 g/day 크레아티닌 1.27 g/day 이었다. 복부 초음파에서 양측 신장은 커져 있었다. 경피적 신조직검사 시행하였고, 시술 후 혈뇨나 동통은 없었으며, 시술 다음날 퇴원하였다. 신조직 검사 4일 후 환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왼쪽 측복부의 터질 듯한 동통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에서 혈압 160/90 mmHg, 맥박수 72/분, 호흡수 24/분, 체온 36.0°C 이었고 급성 병색을 보이고 있었다. 말초 혈액 검사에서는 혈색소 10.3 g/dL, 백혈구 11,000/mm³, 혈소판 170,000/mm³ 이었고, 혈청 생화학 검사는 요소 38.55 mg/dL, 크레아티닌 2.02 mg/dL 이었으며 요 화학 검사에서 RBC 15-20/HPF, WBC 0-1/HFP 이었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좌측 신주변에 혈종이 보였으며, 지혈 위해 시행한 혈관 조영술에서는 출혈 부위가 명확치 않아 색전술은 시행치 않았다. 환자 절대 안정을 취한 후 더이상 혈종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신조직검사 결과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되어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